



무역기술장벽 해소를 위해 전문가 의견 듣는다

- 해외기술규제 체계적 대응을 위해 민간 전문가와 함께 정책 방향 논의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원장 진종욱, 이하 국표원)은 1월 30일(화) 해외기술규제 분야 산·학·연 통상전문가와 함께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무역기술장벽을 해소하기 위해 정책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 무역기술장벽 통보(건) : ('95) 389 → ('05) 897 → ('10) 1,869건 → ('22) 3,896 → ('23) 4,079

지난해 세계무역기구 회원국이 통보한 무역기술장벽 건수는 사상 최초 4천 건을 돌파하였다. 특히, 지난달 우리나라 최대 수출국으로 오른 미국(454건)의 통보문이 가장 많았고, 무역기술장벽 애로가 가장 많은 인도는 지난해 대비 10배(10→113건) 이상 증가하는 등 주요 수출국의 보호무역주의는 올해도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국표원은 지난해 설명회·컨설팅을 통한 기업 역량 제고 지원, 다자·양자 채널을 통한 170건의 기술규제 대응을 하였지만, 기업은 여전히 무역기술장벽 극복을 위한 정부의 지원을 희망(67%)하고 있어 애로 해소 체감도를 높이기 위한 새로운 정책 마련이 필요한 상황이다.

금일 간담회에서는 고려대학교 강병구 교수, 서울여대 조유미 박사가 미국·유럽 연합 등 선제 대응이 필요한 주요국의 기술규제 동향을 공유하였고, 이어진 토론 자리에 참석한 전문가들은 수출기업 지원을 위해 정부가 나서서 무역기술장벽 해소를 위한 신규 정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공통 의견과 함께 제도마련, 국제협력, 기업지원 등 소관 분야에 대한 깊이 있는 다양한 정책을 제안하였다.

회의를 주재한 진종욱 국표원장은 “탄소중립·디지털전환의 대외 환경 변화 속에서 세계 각국은 복잡하고 정교화된 기술규제를 도입하고 있다”면서, “금일 논의한 제안은 대응 중인 무역기술장벽 현안은 물론, 수출기업 지원을 위한 정책 수립에도 유의미하게 활용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이번 간담회 의의를 평가했다.

한편, 국표원은 앞으로도 문제해결을 위해 행동하는 정부로서 무역기술장벽 해소를 위해 상시 주요 기술규제 동향을 공유하고 애로를 청취하는 등 산업계와의 소통을 강화하고, 각계 전문가의 정책 의견을 지속적으로 수렴할 계획이다.

담당 부서	기술규제대응국	책임자	과 장	전민영 (043-870-5520)
	기술규제정책과	담당자	연구관	배종수 (043-870-5523)

참고 1

간담회 개요

□ 추진 배경

- 무역기술장벽 애로 해소를 통한 기업 수출 지원을 위해 관련 전문가와 함께 해외기술규제 대응 주요 정책 방향 논의
- 다양한 관점의 전문가 의견을 검토하여 '24년 정책 수립에 반영

□ 회의 개요

- 회 의 명 : 해외기술규제 대응 정책 간담회
- 일시/장소 : '24.1.30(화), 14:00 / 서울 조선펠리스 호텔
- 참석대상 : 국가기술표준원장 및 관련 전문가 20 여명
- 주요내용 : 무역기술장벽 현황 공유 및 대응 정책 논의

□ 세부 일정

시 간	주 요 내 용	비 고
14:00~14:05 (5')	개회 및 참석자 소개	사회자
14:05~14:10 (5')	모두 발언	국표원장
14:10~14:15 (5')	무역기술장벽 대응 정책 소개	국표원 기술규제정책과
14:15~14:55 (40')	주제 발표	
	① 미국의 기술규제 동향분석과 정부의 대응방안	고려대학교 강병구 교수
	② 유럽연합의 기술규제 동향 및 정책적 시사점	서울여자대학교 조유미 박사
14:55~15:35 (40')	참석자 의견 청취 및 토론	참석자
15:35~15:40 (5')	마무리 발언	국표원장

참고 2**참석 전문가 명단** ※ 가나다順

성명	소속	직위
강병구	고려대학교	교수
김민정	한국개발연구원	책임연구원
김성중	김앤장법률사무소	변호사
남상열	정보통신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신호정	한국생산기술연구원	실장
윤경선	한국자동차모빌리티산업협회	상무
이상욱	한국전자정보통신산업진흥회	실장
이세정	한국법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이용규	중앙대학교	교수
조영재	법무법인 광장	변호사
조유미	서울여자대학교	박사
지승현	LG전자	소장
허진욱	삼성전자	상무